

嶺南地域 高塚古墳의 地域性과 蓮山洞 高塚古墳*

沈 炫 暉*

| 목 차 |

- I. 머리말
- II.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축조양상
- III.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과 연산동 고총고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삼국시대 영남지역 고총고분은 매장주체부의 구조·위치, 봉분의 평면형태·성토방식·비율·규모·호석구조 등을 기준으로 지역성이 확인된다.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과 함안, 함천, 고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기에 각각을 신라식 고총과 가야식 고총으로 명명하였다. 신라식 고총은 묘곽의 지상화, 석축식 호석, 성토단계의 구분, 내사향 성토방식 등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뚜렷하며, 봉분직경 대 높이의 비율이 4:1 정도로 봉긋한

* 본고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주최로 개최된 國際學術심포지엄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에서 필자가 발표한 『新羅·加耶 高塚古墳의 築造技術-地域別 高塚 築造model의 提示-』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여 논문형식으로 완성한 것이다.

** 우리문화재연구원 / susia-6@wooricp.or.kr

고총고분을 축조하였다. 반면, 가야식 고총은 지하식 묘곽의 固守, 葺石式 혹은 낮은 一列호석, 봉분 수평성토 등 상대적으로 봉분을 고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봉분직경 대 높이의 비율이 5:1정도인 완만한 고총고분을 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라식 고총은 규격성과 대칭성이 강한 원형봉분을 중심으로 고총을 기획하였고, 가야식 고총은 대체로 대칭성과 규격성이 낮은 타원형봉분을 축조하였다. 타원형이라고는 하나 부정형이거나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도 있어, 타원형을 기획했다기보다 매장주체부 중심으로 고총을 기획하고 봉분 범위는 매장주체부 주변 일정범위까지 적당히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총고분의 축조순서와 기획원리,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산동 고총고분은 지형과 입지적인 효과는 높지만 고대한 봉분을 쌓으려는 기획의도는 높지 않다.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형태로 보아 고유의 전통을 유지한 채, 고총이라는 新傾向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완전한 가야식 고총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낙동강 연안의 가야 제 소국들과 공유하는 것이어서 연산동 고총고분 축조세력이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토기·마구·갑주 등 주요유물의 분포도 이와 일치하고 있어 연산동고분군에 고총고분이 축조될 때까지는 이 지역 수장세력의 독자적인 自治權과 交涉權 그리고 祭義權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고총고분, 지역성, 신라식 고총, 가야식 고총, 연산동 고총고분

I . 머리말

연산동 고총고분에 대한 이해는 삼국시대 부산지역 정치세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이후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다양하게 이어져 왔다. 먼저, 소위 신라·가야양식토기라고 하는 토기문화해석론과 신라식(경주식) 위세품의 分與 혹은 賜與論을 바탕으로 5세기대 영남지역은 낙동강 東岸을 신라권, 낙동강 西岸을 가야권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다. 이러한 인식 속에 낙동강의 동안에 자리한 창녕과 부산지역 정치체 (북천동·연산동세력)에 대한 인식도 일찍이 신라에 예측되거나 간접 지배를 받는 신라의 지방으로 이해되었다¹⁾. 반면, 연산동고분군의 성립은 북천동고분군과의 계승관계에 있으며, 이들로 대표되는 부산지역 정치체는 토기, 마구, 갑주 등 고고유물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적 요소가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주 선진문물의 유입일 뿐, 완전한 수용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다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의 축조가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지역 수장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고유물의 분포로 보더라도 고령, 합천, 창녕, 함안, 김해 등 가야세력들과 교류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완전한 신라화는 고총고분의 축조중단, 후기양식토기의 부장이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²⁾.

이렇듯 지금까지의 논의는 토기, 장신구, 마구, 갑주 등의 유물과 묘제, 묘형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신라·가야에 대한 인식론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한, 고고자료를 각자의 논리에 맞춰 해석하다 보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신라·가야의 논쟁이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연산동고분군에서도 M3호분, M4호분, M7호분, M8호분, M10호분 등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가 다수 조사

1)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대환,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영남고고학』33, 2003.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주보돈, 「가야사 새로 읽기」,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14. 김용성, 『신라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2) 연산동세력의 수장권을 강조하는 연구는 다음의 글들이 대표적이다. 신경철, 「김해대성동·동래북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 19, 1995.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북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심현철, 「新羅·加耶 高塚古墳의 築造技術·地域別 高塚 築造model의 提示」,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3c.

되었고, 창녕, 고령, 함안 등지에서 봉토까지 완전한 조사가 이뤄진 고총고분 자료가 증가하여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이 글은 연산동 고총고분을 ‘신라와 가야’라는 이분법적 인식 틀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고총고분 자체를 분석하여 영남지역 전체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매장주체시설과 함께 봉분구조와 성토방법 등을 관찰하여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축조방식에는 2가지 큰 흐름이 있음을 밝히고, 이 틀 내에서 연산동 고총고분의 특징과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축조양상

고총고분을 개념 짓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무엇보다 명쾌한 것은 前代의 고분에 없던 ‘높은 봉분의 성토’이다. 매장시설을 단순히 묻고 덮는다는 의미의 낮은 봉분에서 의도적이면서 가시적이고, 피장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高大하게 성토하여 그 자체로서 기념물로의 의미를 갖게 한 봉분, 그러한 봉분을 갖춘 무덤을 고총고분이라 할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고총고분의 출현은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같은 의미이다. 적석목곽묘 자체가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해 고안된 구조의 무덤이기 때문이다³⁾.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고총고분 축조는 이 적석목곽묘의 출현 직후 시작되는데, 가야호로 전 영남지역이 고총고분의 시대⁴⁾

3)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과정」 『韓國考古學報』 88, 2013a, 112~115쪽.

4)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27~129쪽. 지역별로 고총고분의 출현과 수용·발전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영남 전역을 놓고 보면 고총고분이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경주를 시작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분기 설정이 가능하다. I 가-고총출현·성립기(5C 2/4), II 가-고총성행기(5C 3/4~6C 1/4), III 가-고총쇠퇴·소멸기(6C 2/4)

에 들어선 것이다. 고총고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덤에 대한 관념의 일대전환인데, 경주를 필두로 시작된 고총고분의 축조가 영남 각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표출되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를 구체화한다면 그 속에서 연산동 고총고분의 구조와 성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총고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장주체시설, 봉분, 입지 등을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단순한 축조기술의 파악을 넘어서 각 지역 고총고분의 축조 매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고총고분의 표출방식이나 축조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방법적으로 각 지역 고분군 내의 대형분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간 폭을 한정하여⁶⁾ 위계와 시간에 따른 구조와 축조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유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구조나 규모에 따라 변수를 가지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각 지역별 고총고분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1. 지역별 고총고분의 특징

여기서는 각 지역별 고총고분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표본 자료로써 의미를 가지기 위해 봉분이나 매장주체부 관련 수치는 대형분

5) 우선, 각 고분군 내 대형분들은 잔존상태와 조사상황이 가장 양호하다. 대체로 해당지역의 최고위계에 해당하는 고분으로서 위계에 따른 구조적·기술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의 정체성과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6) 영남지역에 존재하는 고총고분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5세기 중엽경에 출현하여 5세기 후반~6세기초에 가장 활발히 축조된다. 그 후 황(구)혈식묘제가 채용되면서 부터는 봉분의 규모가 축소되고 성토방식이 변화하는 등 구조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고총 축조의 최성행기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의 대표성(표본)을 갖기 힘든 일부 출현기의 자료와 황(구)혈식묘제 채용 이후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을 중심으로 평균값을 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단면 모식도로 시각화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별 고총고분의 표준모델을 제안해 본 것이다.

(1) 慶州地域(中心古墳群)⁷⁾

경주지역에서는 월성의 서북지역에 해당하는 현재의 대릉원 일대 주변으로 고총고분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현재 경주분지내의 중심고분군에는 약 100여기의 고총고분이 남아 있지만 당초 수 백기에 달하는 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잘 알려진 바대로 고분군의 중심묘제는 적석목곽묘이다. 초대형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지와 환경 - 경주 분지 내 선상지의 선단부에 입지(대체로 平地이나 微高地 존재). 기반은 선상지 퇴적층으로 모래와 자갈이 많이 포함됨.
- 고분군 규모 - 추정 500여기 이상의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함. 봉분 지름 10m이하부터 최대 80m까지 다양함(최대형분: 80m급 4기).
- 매장주체시설 - 적석부를 갖춘 (반)지상식의 목곽. 적석부에 木造架構시설 확인. 매장방식은 단독식으로 이혈주부곽식 또는 단곽식.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區劃盛土, (중단면)內斜向・水平・上斜向盛土 등 확인.
- 호석 - 외면을 石築式으로 쌓고 뒷채움 두텁게 함(높이는 7~8단 이상으로 높음). 평면 1열이 기본이나 2열 및 계단식 호석 등 일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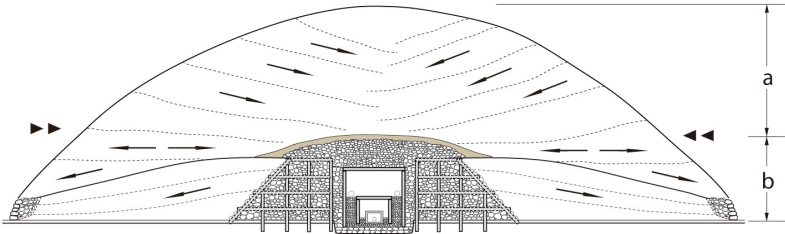
7) 이 일대 고분군에 대한 명칭은 邑南고분군, 황남동일대 고분군, 월성지구 고분군, 신라 왕궁고분군, 월성북고분군 등 다양하다. 행정구역으로도 인왕동, 황오동, 황남동, 교동, 노서동, 노동동 일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지만 전체를 하나의 고분군으로 보아야 한다.

한 형태가 확인됨.

- 분형 - 기본적으로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함. 연접이 활발하여 瓢形 및 다수의 봉분이 연접된 연접분(주로 중소형분) 사례가 많음.

<표 1> 경주 적석목곽묘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비율 (지름/높이)	크기 (m)	면적 (㎡)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80	5024	15	20	4.05	6.6*4.3	28.3	0.56%



<그림 1> 경주 적석목곽묘의 종단면 모식도

(2) 大邱地域(不老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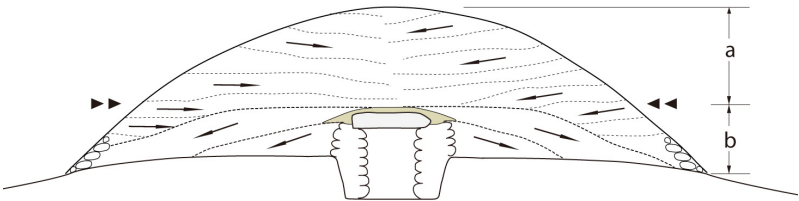
불로동고분군은 대구분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금호강의 北岸일대 구릉정상부와 사면부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대형분으로는 해안면 1호분⁸⁾, 91호·93호분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齊藤忠, 「大邱附近於古墳調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40.

- 입지와 환경 - 금호강 北岸의 구릉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함. 점판암 계 퇴적암이 기반을 이루고 있음.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20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봉분 지름 6m부터 최대 30m까지 다양하나 8~12m내외가 가장 많음(최대형분: 30m급 3~4기).
- 매장주체시설 - 세장방형의 반지하식 석곽으로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분리하고 있는 日字形이 기본. 부곽의 폭이 주곽보다 좁고 단벽을 둥글게 처리함. 부곽은 단면 제형으로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음.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區劃盛土, (종단면)內斜向·水平·上斜向盛土 등 확인.
- 호석 - 외면을 石築式으로 쌓고 흙으로 뒷채움함. (높이는 6~7단 정도로 높음). 평면 1열이 기본이며, 일정한 폭을 가짐.

<표 2> 대구 불로동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비율 (지름/높이)	크기 (m)	면적 (㎡)	2.16%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21	343	3.5	5.2	4.03	5.7*1.3	7.41		



<그림 2> 대구 불로동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 분형 - 기본적으로 타원형과 원형. 봉분연접이 활발하여 선축고분의 봉분을 파괴하고 순차적으로 연접시켜 최종적으로도 원형에 가깝게 축조된 사례도 확인됨.

(3) 星州地域(星山洞古墳群)

성산동고분군은 星山 정상부의 星山山城 주위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봉토분은 10기이며, 이 중 5기는 일제강점기에 조사⁹⁾되었고, 나머지 5기는 1986년 계명대학교 박물관¹⁰⁾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지와 환경 - 星山 정상부에서 북서쪽 일대로 뻗어 나온 구릉정상부와 경사면에 입지.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 12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봉분지름 10m부터 최대 30m까지 다양함. (최대형분: 30m급 3~4기, 星州大墳 등).
- 매장주체시설 - 장방형의 반지하식 석곽으로 병렬식 이혈주부곽 형태. 부곽은 주곽보다 더 장방형에 가깝고 규모가 작음. 석곽의 축조는 판상석을 수직한 板石造와 割石造의 2가지 형태 확인.
- 묘광 - 석곽 내벽에서 묘광까지의 폭이 평균 80cm 정도로 비교적 넓음.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區劃盛土-區劃石列, (중단면)內斜向・水平・上斜向盛土 등
- 호석 -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중 호석이 뚜렷이 확인된 사례 희소함.

9) 星州大墳, 八桃墳, 舊1號墳, 舊2號墳, 舊6號墳으로 불리던 고분이다. 今西龍, 『大正六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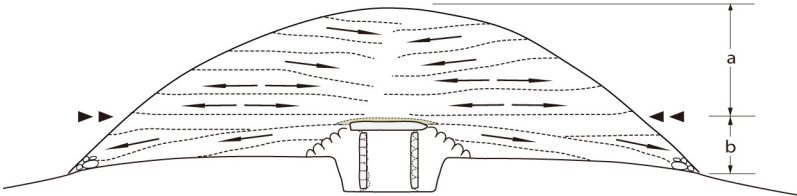
10) 38호분, 39호분, 57호분, 58호분, 59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星州星山洞古墳群』, 2006.

58호에서 확인된 호석은 외면을 石築式으로 낮게 쌓고 약간의 폭을 가짐. (높이는 2~4단 정도)

- 분형 - 기본적으로 원형, 경사면에 위치한 고분은 평면상 약간 타원형임.

<표 3> 성주 성산동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비율 (지름/높이)		2.05%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18.5	268	3.8	4.5	4.1	3.7*1.5	5.5	



<그림 3> 성주 성산동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4) 昌寧地域(校洞・松峴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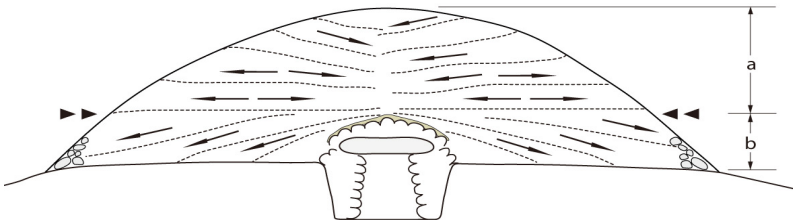
교동·송현동고분군은 목마산에서 뻗어 나온 구릉의 사면부와 능선상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수백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확인되는 고총고분은 90여기이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2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지와 환경 - 牧馬山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낮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에 9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봉분의 직경은 20m가 가장 많음. (최대형분: 30m급으로 2~3기정도 존재)
- 매장주체시설 - 세장방형의 반지하식 석곽 또는 횡구식이 주요제이며, 묘곽 단면 梯形. 개석상부에 적석을 두텁게 하여 밀봉하는 특징 확인됨. 반지하식의 구조이지만 대체로 벽석의 최상단과 蓋石정도가 지상에 위치함.
- 묘광 - 묘곽에서 묘광벽 사이의 폭이 1.5m 내외로 넓음(장벽 기준).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異色粘土帶 및 區劃石列 확인. (종단면) 內斜向・上斜向・水平盛土 확인됨.
- 호석 - 묘곽 구축과 관련된 성토층과 동시에 축조되어 봉토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외부로 노출되어 석축처럼 구축한 경우가 확인됨. 석축으로 축조한 경우 7~8단으로 비교적 높게 설치한 사례도 있음. 평면 1열이 기본.

<표 4> 창녕 교동·송현동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크기 (m)	면적 (㎡)	2.57%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25	490	5.4	6.1	4.1	7.9*1.6	12.6	



<그림 4> 창녕 교동·송현동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 분형 - 대체로 원형으로 확인되지만 경사면에 입지한 경우에는 약한 타원형임. 송현동고분군에서만 2기 혹은 3기의 봉분을 연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5) 高靈地域(池山洞古墳群)

지산동고분군은 主山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주능선과 읍내방향의 가지능선 및 사면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직경10m 이하의 소형분까지 합하면 최대 70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며, 이 중 직경15m이상의 것은 대략 30~40기 정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광복 이후 약 10여기의 대형분이 발굴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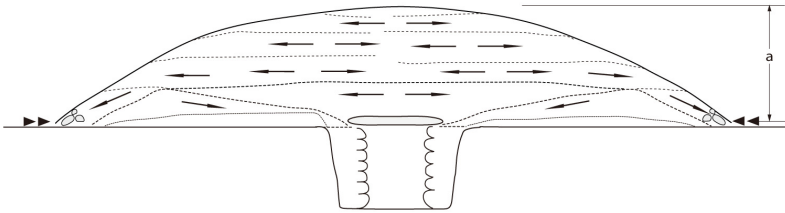
- 입지와 환경 - 主山에서 뻗어 나온 주능선과 가지능선의 정상부·사면부에 넓게 분포.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에 70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이 중 직경15m이상의 중대형분은 40여기이며 최대 약 40m급까지 존재 (최대형분: 現47호분).
- 매장주체시설 - 세장방형의 지하식 석곽이 주요제이며, 별도의 부곽 및 순장곽 역시 세장방형으로 한 봉분 내에 다수 배치함.
- 묘광 - 석곽 내벽에서 묘광까지의 폭이 평균 80cm 정도.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區劃盛土-구획석열, (종단면)土堤 및 內斜向·水平盛土 등
- 호석 - 호석은 외면을 石築式으로 낮게 쌓고 약간의 폭을 가짐. (높이는 3~4단 정도) 좁석식으로 넓은 폭을 가지며 성토층 내부로 쌓기도 함. 평면 1열이 기본형태이나 지형에 따라 2~3열을 배치하는 사례

도 존재. 경사면에 기능적으로 설치.

- 분형 - 기본적으로 약한 타원형이 가장 많으며, 원형도 확인됨.

<표 5> 고령 지산동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비율 (지름/높이)	크기 (m)	면적 (㎡)	2.9%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23	415	2.5	3.5	6.5	720*170	12.2		



<그림 5> 고령 지산동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6) 陝川地域(玉田古墳群)

옥전고분군은 黃江하류 주변의 얇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봉분이 잔존한 고분은 18기이며, 이 중 8기 정도의 고총고분이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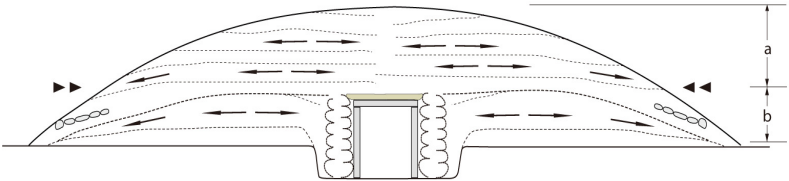
- 입지와 환경 - 黃江하류역 일대의 주변에 위치한 얇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

11) 시기적으로 후행하며 묘제형식과 구조가 다른 M10호, M11호는 본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에 2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봉분 직경은 10m부터 20m대가 일반적. (최대형분도 25m이상은 없음)
- 매장주체시설 - 장방형의 반지하식 또는 지상식 목곽과 일부 석곽이 주요제이며, 蓋石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특징(추정木蓋). 장방형의 묘곽은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분리함. 목곽의 경우 보강석을 설치하여 석축처럼 쌓은 곳과 다소 영성하게 쌓인 부분이 같이 확인됨. 석곽은 목곽보다 세장함.
- 묘광 - 묘곽 하부의 일부만이 지하에 위치할 정도로 얇게 굴착함.
- 봉분성토방식 - (평면)추정 區劃石列, (종단면)上斜向·水平盛土 - 경사도 완만함.
- 호석 - 묘곽 구축과 관련된 성토층과 동시에 축조됨. 성토층의 외연 끝부분에 엮적처럼 설치하여 비교적 넓은 폭을 가짐. 일부 1~2단의 석축으로 축조한 사례도 있음.

<표 6> 합천 옥전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크기 (m)	면적 (㎡)	5.51%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20.3	323	1.8	3.5	5.8	8.5*2.1	17.8	



<그림 6> 합천 옥전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 분형 - 대체로 원형으로 보이지만 호석을 기준으로 하면 타원형이 기본이며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것도 있음

(7) 咸安地域(末伊山古墳群)

말이산고분군¹²⁾은 도항리·말산리고분군으로도 불리며, 현재의 가야읍에 위치한 낮은 구릉의 능선정상부와 8개의 지능선상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현재 대략 4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며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7기 정도의 대형분이 조사·보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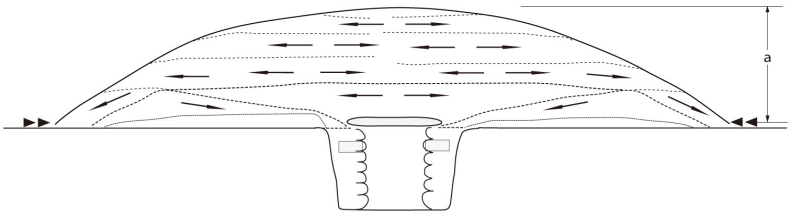
- 입지와 환경 - 낮은 야산처럼 형성된 구릉의 주능선과 지능선상에 입지.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에서 40여기정도의 고총고분이 잔존함. 봉분의 직경은 10~30m로 20m급이 가장 많음. (최대형분: 30m급으로 2~3기 존재)
- 매장주체시설 - 세장방형의 지하식 석곽이 주요제이며, 비교적 얇은 퇴적암류의 개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묘곽 내에 들보시설을 갖추(장단벽에 홈 확인)
- 묘광 - 묘곽 내측벽과 묘광벽 사이의 폭이 1.5m 내외로 넓은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좁음.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좁아 단면 사다리꼴 형태.
- 봉분성토방식 - (평면)放射狀區劃盛土. 축조단계에 따른 구획단위 축소 및 변경 확인됨. (종단면) 上斜向·水平盛土가 주를 이룸. 일부 土堤, 粘土塊盛土 확인됨.
- 호석 - 설치하지 않음

12) 본고에서는 분류의 편의상 기존의 유구명을 모두 ‘말이산 ●호’로 명명하고자한다.

- 분형 - 지형적 영향에 따라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은 타원형, 사면부에 위치한 고분은 원형. 대체로 타원형이 많음.

<표 7> 함안 말이산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	높이(m)		비율 (지름/높이)	크기 (m)	면적 (㎡)	
		a	a+b				
25	490	3.6	4.2	5.9	9.8*1.7	16.6	a: 蓋石上~ 봉분정점 b: 봉분기저~ 蓋石上



<그림 7> 함안 말이산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8) 釜山地域(蓮山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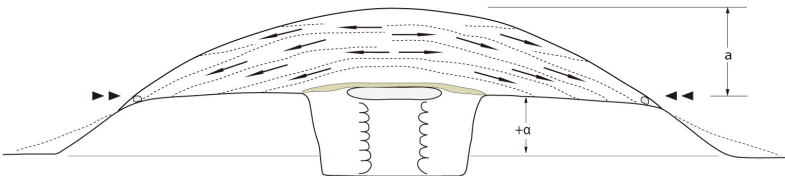
연산동고분군은 기존의 연구에서 복천동고분군과 계승관계이 있는 수장층의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다. 釜山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완만한 능선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8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된다. 최근까지 총 5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으며¹³⁾, 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4호(1987년 부산여대 조사), 8호(1987년 경성대 조사), M3호·M7호·M10호(2011~2013년부산박물관 조사)가 조사되었는데, M7·M10호는 매장주체부 위주의 내부 조사였다.

- 입지와 환경 - 盞山の 북쪽으로 뻗어 나온 완만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분포함. 대형분을 중심으로 3개의 군집을 이룸.
- 고분군 규모 - 현재까지 이 일대에 18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됨. 봉분의 직경은 대략 10m급부터 20m대가 주류. (최대형분: 약25m로 3기 정도 존재)
- 매장주체시설 - 기본적으로 세장방형의 완전한 지하식 석곽이 주묘제이며, 주·부곽을 별도의 묘광에 설치하거나 가운데 격벽을 설치하여 나눈 형태가 확인됨.
- 묘광 - 묘곽 내벽에서 묘광벽 사이의 폭이 1.6~1.8m 내외로 매우 넓음.
- 봉분성토방식 - (평면)추정放射狀區劃, 작업로 확인. (종단면)上斜向
 ・ 水平盛土 위주. 부분적인 土堤와 內斜向盛土가 세트로 확인됨. (성토재) 粘土塊盛土.

<표 8> 부산 연산동 고총고분의 주요 특징

봉분				매장주체부		면적비율 (매장시설/봉분)	비고
지름 (m)	면적 (m ²)	높이(m)		크기 (m)	면적 (m ²)	4.43%	a: 蓋石上~ 봉분정점 b: 호석~ 蓋石上
		a	a+b				
22.5	397	3	4.2	5.7	9.8*1.8	17.6	



<그림 8> 부산 연산동 고총고분의 종단면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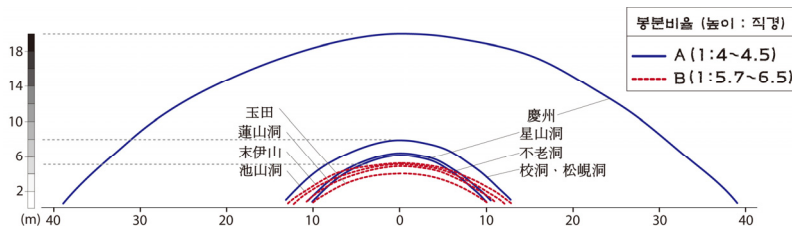
- 호석 - 봉분의 기저부에 1단 1열의 형태로 좁석 하듯이 설치함.
- 분형 - 기본적으로 능선방향에 따라 타원형이 가장 많으며, 장타원형도 존재함.

2.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축조양상

이상에서와 같이 각 지역별 고총고분의 특징을 대형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각은 지역색이 뚜렷하면서 개성적인 모습이다. 여기서는 지역별 고총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총성행기의 영남전역이라는 틀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봉분의 규모와 외형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특징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봉분의 규모이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지형적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봉분규모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경주 적석목곽묘와 그 외 지역 고총고분의 규모차이가 매우 크다.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최대크기가 직경 약 80m에 이르는 것에 비해 그 외 지역에선 직경 35m정도가 최대치이다. 특히, 옥전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에서는 직경 30m급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봉분규모가 작다. 이러한 봉분규모의 차이는 고총고분 조영집단의 사회·정치적 배경 외에 매장시설의 구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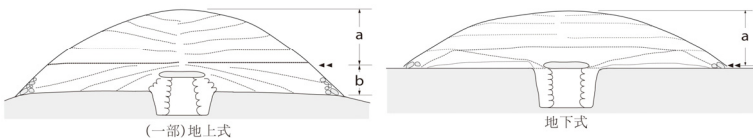
<그림 9> 봉분의 외형과 규모에 따른 분류

형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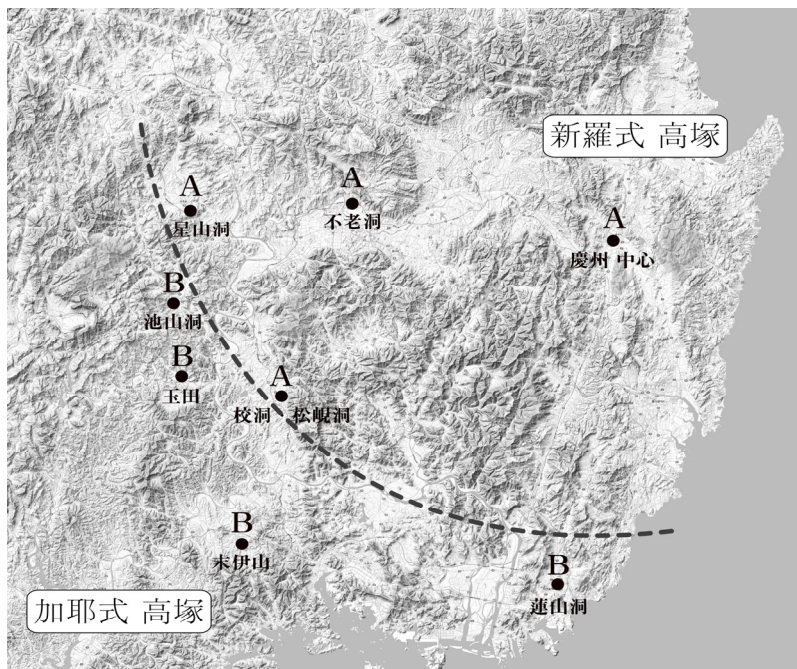
두 번째 주목되는 점이 봉분의 외형인데, 단면 비율(봉분높이/봉분직경)에서 드러나듯이 평균적으로 1:4~4.5정도의 비율을 가지는 A유형과 평균 1:5.7~6.5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B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외형적으로 보면, A유형은 봉분이 높고 봉긋한 형태이고 B유형은 A유형에 비해 봉분이 낮고 완만한 형태이다. 봉분의 외형에서 이와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장주체시설의 위치이다. A유형의 고총고분은 모두 매장시설이 地上 또는 半地上인 반면, B유형은 옥전 고총고분을 제외하면 전부 地下에 위치한다. 매장시설의 위치는 봉분의 외형(높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¹⁴⁾. 봉분성토에 있어 매장주체부가 중요한 만큼 매장주체부 상부(개석 위)의 최대성토높이(a)는 매장시설의 규모와 구조에 맞춰 봉토압 등을 심분 고려한 결과이다¹⁵⁾.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크기와 구조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하식보다는 지상식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봉분이 된다. 달리말해, 같은 규모(직경)의 봉분을 설계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지하식은 지상식에 비해 최종적인 봉분의 높이가 낮아 상대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낮은 봉분이 만들어진다.

- 14) 봉분하중 때문에 묘곽의 형태와 구조 및 규모에 따라 그 상부로 쌓아올릴 수 있는 성토의 양(높이=a)이 제한된다고 할 때, 매장주체부를 地上化하면 지면으로부터 그 만큼의 높이(b)가 올라간다. 따라서 묘곽의 地上化는 봉분을 高大化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a : 매장주체부 상부 성토
b : 매장주체부 주변부 성토



- 15) 매장주체부의 규모(면적)와 구조에 따라 그 상부에 최대로 쌓을 수 있는 성토의 높이는 이미 고분축조 이전의 설계에서 결정(예측)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

(2)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

봉분의 외형과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A유형에 속하는 고총고분은 경주 중심, 대구 불로동, 성주 성산동, 창녕 교동·송현동 등이며, B유형에 속하는 고총고분은 고령 지산동, 함천 옥전, 함안 말이산, 부산 연산동 등이다<그림 10>. A유형은 신라의 중심인 경주와 그 주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보다 일찍이 신라세력에 편입된 곳들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B유형은 대체로 낙동강 서안에 해당하며, 전통의 가야지역으로서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핵심세력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와 같은 뚜렷한 지역차이 때문에 각 유형을 新羅式 高塚(A유형)과

加耶式 高塚(B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만,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교동·송현동고총고분이나 연산동고총고분처럼 시간흐름을 배제한 채 그 성격을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어 이들은 고총고분 문화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신라식 고총과 가야식 고총의 차이를 봉분평면형태·성토방식·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그 속에서 연산동 고총고분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과 연산동 고총고분

1. 신라식 고총과 가야식 고총

(1) 봉분 평면형태 및 매장시설의 점유율

신라·가야 고총고분의 봉분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 혹은 타원형이다. 봉분의 평면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는 지형(입지), 묘곽의 형태변화, 봉분축조방식의 차이 등이다. 단, 봉분축조가 점차 기획화·정형화되어 감으로써 횡(구)혈식 묘제의 채용단계부터는 봉분이 正圓形에 가깝게 축조되며 타원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식 고총과 가야식 고총은 이러한 큰 흐름 내에서도 봉분평면형태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신라식 고총의 평면형태는 일부 시기적으로 앞서는 자료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원형을 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가야식 고

16) 경주 적석목곽묘의 경우에 묘곽의 형태가 주부곽식에서 단곽식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봉분의 평면형태 또한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그 시점은 대략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인데, 애초 적석목곽묘 출현단계부터는 봉분평면이 타원형으로 출발하고

충은 고분군 내에서의 비율을 보더라도 타원형이 많다¹⁷⁾. 옥전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 말이산고분군의 경우에 조사되지 않은 고총고분을 포함하더라도 타원형 봉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산동고분군의 경우에도 약한 타원형의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봉분의 전체면적에서 묘곽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신라식 고총의 묘곽은 대략 2.5%이하를 점유하며, 초대형 적석목곽묘의 경우처럼 0.5%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그에 비해, 가야식 고총의 묘곽은 평균적으로 3.5~4.5%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옥전의 경우에는 5.5%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가야식 고총이 신라식 고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봉분면적 대비 묘곽 면적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2) 봉분성토방식과 蓋石上 성토높이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들 대부분이 해당고분군 내에서 봉분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 봉분의 평면적인 성토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봉분단면상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면, 신라식 고총과 가야식 고총은 봉분성토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매장시설이 지상화된

있다. 그러나 이것도 황남대총 남분처럼 최대형분에서는 원형으로 축조되어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고, 타원형 봉분도 가야지역 타원형 봉분과 달리 매우 기형적이어서 대칭성이 뚜렷하고 규격화되어 있다. 심현철,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考古廣場』 15, 2014, 51~53쪽.

- 17) 가야식 고총 가운데에서도 지역별로 동일 고분군 내에서 타원형과 원형 봉분이 동시에 함께 축조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형적 영향에 따른 고총의 입지와 관련이 있다. 함안 말이산 고총고분의 경우에 능선상에 위치한 고분은 타원형, 능선 사면부에 위치한 고분은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타원형 봉분을 만드는 기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지형적 영향에 따라 일부 원형 봉분으로 축조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봉분축조가 기형적이지 않아 대칭성이나 규격성이 없는 원형봉분이라 신라식 고총의 원형봉분과는 완전히 다르다. 홍보식·심현철, 「各種 古墳別 封墳形態와 築造方法」, 『한일의 고분』, 제4회 한일교섭의 고고학 공동연구회, 2016, 207~208쪽.

신라식 고총은 매장주체부의 주변부 성토에서 자연스럽게 상사향성토가 나타났고, 매장주체부 상부에서는 수평성토가 이뤄지면서 평탄면(수평면)이 마련된 경우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수평성토 위로는 경사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사향성토를 하여 봉분조성을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탄면을 기준으로 봉분성토의 단계가 크게 나뉘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야식 고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봉분 중심에서 수평성토하여 외연부로 가면서 경사지게 상사향성토를 하고, 이러한 방식을 봉분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한다. 크게 보아 가야식 고총은 수평·상사향성토가 중심이며 봉분조성에 있어 큰 단계가 나뉘지지 않는 반면, 신라식 고총은 수평·상사향성토는 기본이며, 봉분성토 가운데 평탄면과 내사향성토가 확인되는 등 그 차이가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토방식의 차이는 개석상부에서 봉분정점까지의 성토높이(a)와도 관련이 있다. 신라식 고총의 경우에는 개석상부의 성토높이가 경주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5~6m에 이르는 높은 성토가 이뤄지는 반면, 가야식 고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성토높이가 최대 3.5m정도이다¹⁸⁾. 이 개석 상부의 성토높이는 매장주체시설의 형태나 규모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야식 고총처럼 상사형성토와 수평성토만으로는 봉분사면의 각도유지, 작업로의 확보 등 작업상의 한계로 인해 일정높이 이상으로 성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 성토가능 높이는 약 3.5m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그 이상의 높이로 성토가 가능하려면 평탄면과 함께 내사향성토 등 전체 성토공법이 달라져야 하며, 이는 애초 봉분성토의 최종 목표와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18) 단, 함안의 말이산 舊34호(現4호)는 이 지역 최대형분으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도면에 의하면 개석상부에서 墳頂까지의 성토높이가 4~5m정도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봉분의 성토방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사된 이 지역 다른 고총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다소 예외적인 사례이다.

(3) 호석구조

고총고분의 출현과 함께 봉분성토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 봉분 기저부에 설치되는 호석이다. 영남지역 대부분의 고총고분에 호석은 설치되지만 이 역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잘 알려진 바대로 경주의 적석목곽묘에는 중소형분에도 석축처럼 잘 짜인 호석이 설치된다¹⁹⁾. 경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위치한 신라식 고총에는 이처럼 봉분의 기저부 전체에 석축처럼 호석을 설치한다. 반면, 가야식 고총에는 낮은 단의 호석을 쌓되 그마저도 지형적으로 취약한 곳에 부분적으로 설치하거나, 좁석하듯이 봉분 성토층 내에 포함시키는 등 구조에 있어 신라식 고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설계된 봉분의 높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봉분을 높고 봉긋하게 성토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면부의 경사도도 증가하고 봉분의 유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구조로써 석축식의 호석을 기저부에 쌓는 것이다. 한편, 함안 말이산 고총고분에서는 호석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데, 높은 봉분에 대한 의도가 없는 것과 동시에 성토재의 차이²⁰⁾, 호석축조재료의 수급문제 등 자연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구획요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고총고분 축조에는 반드시 분할성토가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적을 분할하기 위한 표식 즉, 구획요소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²¹⁾.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도 유독 전 방위에 걸친 방

19) 심현철, 앞의 논문, 2013a, 111~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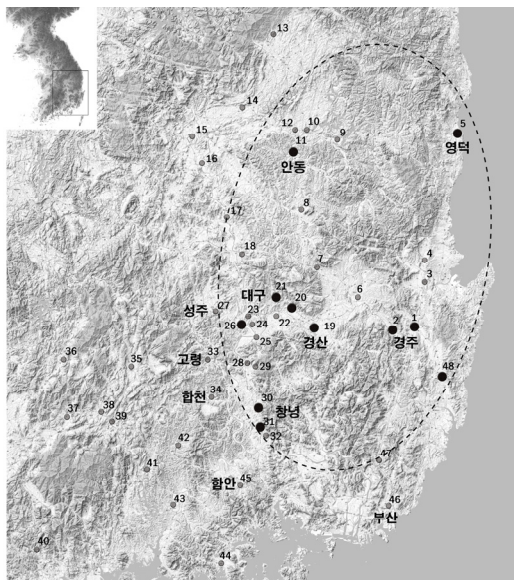
20) 최근 조사된 함안 말이산 25호분과 26호분의 예에서 보면, 봉분 성토재의 90% 이상이 점성이 아주 강한 실트나 점토였다. 봉분을 높게 쌓을 의도가 약하고 성토재의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호석이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1) 조영현, 「韓日古墳の土木技術」, 『월간고고학ジャーナル』No.505, 뉴너·사이언스社, 2003, 90~211쪽.

사상의 석열과 점토띠 등 소위 뚜렷한 구획요소들은 대체로 신라식 고층에서만 확인되고 가야식 고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있었지만²²⁾ 현재까지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그 지역 차는 분명하며, 근년에 조사된 현풍 성하리 1호분, 창녕 교동 7호분, 부산 연산동 M3호분, 함안 말이산 25·26호분의 사례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 뒷받침한다.

(5) 봉분연접

경주 적석목곽묘의 봉분조성방식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봉분의 연접축조이다. 이는 고분 상호간의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피장자 상호간의 친연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최종적인 봉분의 형태까지 고려하여 연접하는 등 기획의도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봉분연접은 경주, 경산, 대구, 영덕 등 신라



<그림 11> 영남지역 연접분(●)의 분포

문화권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하였으며, 가야식 고층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신라식 고층 특유의 봉분축조방식이다<그림 11>. 연접방식에

22) 홍보식, 『횡혈식·횡구식석실분의 봉분조성방식 검토』 『백제와 주변세계』, 성주탁교수추모논총간행위원회, 2012, 71~79쪽.

는 일정한 원리가 있고,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가족묘 개념의 석실묘가 등장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²³⁾. 창녕지역의 경우,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도 유독 송현동고분군에서만 연접사례가 확인된다. 집단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나눠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창녕지역에서 연접분의 출현시점이 6세기 전반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송현동고분군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신라식 고총문화의 영향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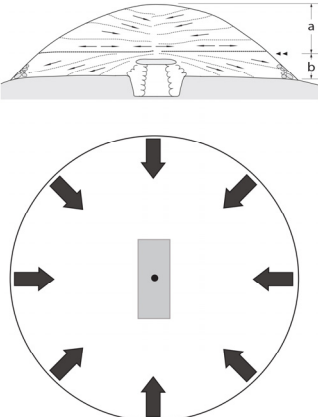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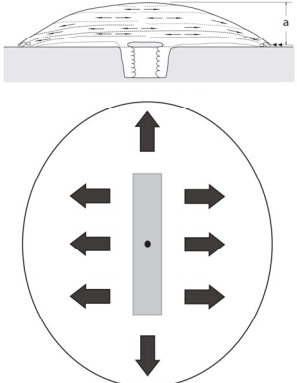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新羅式 高塚과 加耶式 高塚의 비교

고총유형 주요내용		新羅式 高塚	加耶式 高塚
封墳	비율(외형)	1:4~4.5(∧)	1:5.7~6.5(—)
	최대규모(직경)	경주: 80m / 주변: 35m정도	35m정도
	평면형태	원형 多	타원형多, 일부 말각장방형
	蓋石上 성토높이	5m 이상 (최대15m)	3.5m이하
	성토방식	上斜向・水平・內斜向 ・(平坦面)	上斜向・水平盛土
	구획요소	全方位의 방사상 석열・점토띠	부분적인 구획요소
	호석구조	(高段) 石築式・全面	(低段) 石築・葺石式・부분적
	연접	봉분연접 일반적	봉분연접 無
	규격성	뚜렷함, 위계화 가능	불분명
墓槨	위치	(半)地上式	地下式(옥전고분 제외)
	묘형	장방형(창녕-세장방형)	세장방형(옥전-장방형)
고분 입지		평지, 구릉정상・사면부	구릉정상・사면부
봉분 대 표곽면적 비율		2.5%이하(경주:0.5%)	3.5~4.5%(옥전:5.5%)
* 축조 메커니즘 (기획 순서)		봉분 중심 고총 (봉분→매장주체부)	매장주체부 중심 고총 (매장주체부→봉분)

23) 심현철, 앞의 논문, 2014, 44~53쪽.

24) 심현철, 위의 논문, 2014, 49~50쪽.

지리적 위치	洛東江 東岸(성산동포함)	洛東江 西岸(연산동포함)
주요 고총고분	경주 중심고분, 대구 불로동, 성주 성산동, 창녕 교동·송현동 등	고령 지산동, 함천 옥전, 함안 말이산, 부산 연산동 등
축조 모 식 도		

2. 고총고분 축조문화의 두 흐름 - 축조 메커니즘의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지역의 고총고분은 봉분의 외형, 매장주체부의 위치와 봉분성토방식, 호석구조, 봉분연접 등 다양한 요소에서 뚜렷한 지역차이가 있다. 대체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과 낙동강서안의 고령, 함천, 함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문화권으로 나뉘며, 필자는 이러한 지역성에 주목하여 영남지역 고총고분을 ‘新羅式 高塚’과 ‘加耶式 高塚’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역성의 발생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신라식 고총은 봉분의 높이가 높고 봉긋한 형태를 띠며 평면적으로는 잘 기획된 원형봉분을 갖추었다. 조사된 고총들 중에는 거의 正圓形에 가까운 사례도 많이 있다. 매장주체부

의 위치가 봉분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축조 과정 상에서 제일 먼저 봉분의 크기와 형태를 잡고 그 다음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성토에서는 다양한 성토방식이 적용되었고, 방사상 석열·점토띠 등 뚜렷한 구획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석축식의 견고한 호석을 쌓았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은 특히,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소들으로써 봉분을 高塚化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고안과 노력의 결과이다²⁵⁾. 매장주체부를 적극적으로 地上化시키고 봉분을 원형으로 기획하며 매장주체부의 규모보다 월등히 큰 면적의 봉분을 쌓는 현상 등은 무덤을 고충화 또는 거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²⁶⁾ 그만큼 신라식 고충은 고충고분의 축조와 기획에 있어 봉분이 가장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야식 고충은 비교적 완만한 높이의 봉분에 평면은 타원형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개석 상부의 성토높이가 신라식 고충에 비해 낮고 성토방식 또한 상대적으로 단조로우며²⁷⁾, 봉분기저부에는 호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낮은 단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봉분 성토층 내부에 포함시켜 葺石하듯이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매장주체시설은 완전한 지하식이 많고 상부구조(개석)가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야식 고충이 신라식 고충에 비해 고충고분의 축조와 기획에 있어 상대적으로 고대한 봉분성토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야식 고충이 봉분면적 대비 묘곽면적의 비율에서 신라식 고충에 비해

25) 심현철, 앞의 논문, 2013a, 112~114쪽.

26) 창녕지역 고충고분의 묘곽 단면이 梯形인 점, 개석 상부에 적석(소위 밀봉석)을 하는 행위, 적석목곽묘의 적석부(목조가구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수적인 묘제에 다양한 변화 요소를 가미하면서까지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27) 고충고분의 봉분성토방식은 사실 그리 간단치 않다. 구체적인 성토기법이 알려진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각 지역별 특유의 성토기법 등이 확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신라식 고충과 가야식 고충 양자를 놓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봉분의 높이가 높고 사면 경사도가 급한 신라식 고충이 구조나 성토공정에 있어 복잡한 양상이다.

높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옥전과 지산동, 연산동의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묘곽에서 봉분외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으며 전체적으로 묘곽규모에 비해 봉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가야식 고총의 봉분평면형태가 타원형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원형봉분처럼 엄격하게 기획·설계된 것이 아니라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동일하게 이격하여 비교적 간단히 봉분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타원형이라고는 하나 다소 부정형이거나 말각장방형인 경우, 대칭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묘곽을 여전히 전통의 지하식 구조로 고수하려는 점에서, 고총고분단계에 들어왔음에도 봉분을 고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보다는 전통적인 장제와 묘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신라식 고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대한 봉분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고총을 기획하고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 지역 前代 고분의 봉분이 낮은 방대형으로 추정되곤 하는데, 매장주체부 상부와 주변부 일정 범위를 ‘덮는다’는 의미가 큰 것이다. 고총고분 단계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높은 봉토는 쌓되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주변일대로 봉분범위를 설정하다보니 타원형계 봉분이 되는 것이다. 즉, 가야식 고총은 축조순서에 있어서도 매장주체부의 위치와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지형이나 입지를 고려해 자연스럽게 봉분의 범위와 크기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이 경주로부터 시작된 고총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한 결과이자 모습이다.

한편, 옥전고총고분의 구조가 예외적인데, 가야식 고총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장주체시설이 거의 지상에 설치되었다. 봉분은 가야식 고총의 어느 지역보다도 완만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묘곽의 크기에 비해 봉분이 월등히 작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옥전 고총고분의 營造者들에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매장시설을 목곽으로 만들고 石蓋로 덮

지 않은 점, 목곽 주변부를 석재로 보강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 매장주체부의 폭이 가야식 고총 가운데에서는 가장 넓은 점(1.8~2.7m)²⁸⁾ 등이 매장주체부 위로 성토를 높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것은 高塚이라는 新경향을 받아들이고도 매장주체부에 초점을 맞춰, 묘곽을 지상화한 것 이외에는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한 아무런 구조적 고안을 하지 않고²⁹⁾ 목곽을 고수한 상태에서 넓은 매장공간의 확보 등을 최우선시 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경주의 적석목곽묘가 영남 지역 고총고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축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목곽을 둘러싼 적석부에 있다. 지상화한 목곽을 매장시설로 추구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거대한 봉토를 쌓기 위한 내부 기초로서 견고한 적석부를 마련하여, 마치 거대한 봉분 속에 중핵처럼 매장시설이 견디도록 고안하였다. 전통적인 목곽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구조적 고안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고총고분을 축조한 것이다. 적석부의 형태와 구조만 잘 고안해낸다면 현재의 최대형분이 80m급이지만 그 이상의 큰 봉분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³⁰⁾.

고총고분의 축조흐름이 신라문화권과 가야문화권으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각 지역별로 고총이 최성기를 이룬 5세기 후반~6세기 초의 시점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고총문화는 곧바로 영남전역으로 확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축조된다.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본다면, 각 지역별 고총출현기의 모습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지만, 신라식 고총의

28) 매장주체시설의 면적은 그 상부의 봉토압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로서, 전체면적에서도 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봉토압을 견딜만한 일정한 폭을 유지한 채 개석 등으로 상부를 잘 마무리한다면 묘곽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고총의 묘곽이 대체로 세장방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9) 목곽주변으로 석재를 보강한 점은 지상화시킨 목곽의 주변부를 지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데, 경주 적석목곽묘의 적석부와 비교했을 때 구조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

30)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構造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5~76쪽.

경우에는 경주 적석목곽묘의 봉분에 가미된 다양한 기술요소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주변지역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어 많은 영향이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야식 고총의 경우, 고총고분을 축조하여야 한다는 동시대의 흐름은 수용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술요소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전 단계와 달리 무덤의 축조에서 외부로 들어나는 거대한 봉분을 쌓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념이 전통적인 묘제·장제와 만나면서 각 지역별로 독특한 형태의 지역고총이 성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신라식고총과 가야식 고총으로 지역성이 뚜렷하게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총고분이라는 새로운 경향 속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를 어떻게 표출해 내느냐, 축조 메커니즘의 완벽한 차이에 있다. 높은 봉분 축조에 모든 노력을 기우렸던 봉분중심의 신라식 고총과 전통적인 매장관념을 고수한 채 새로운 문화를 자기화한 매장주체부 중심의 가야식 고총, 이것이 고총고분시대에 영남지역의 모습이다³¹⁾.



<그림 12> 연산동고분군 고총고분 배치도

31) 이러한 관점에서 봉분의 규모를 기준으로 고총고분을 위계화 시켰던 연구경향도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가야식 고총의 경우에는 봉분 규모에 따른 위계화가 명확하지 않으며, 매장주체시설의 크기와 입지 등이 위계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봉분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인데, 반대로 신라식 고총은 이와 달리 봉분 규모에 따른 위계화가 용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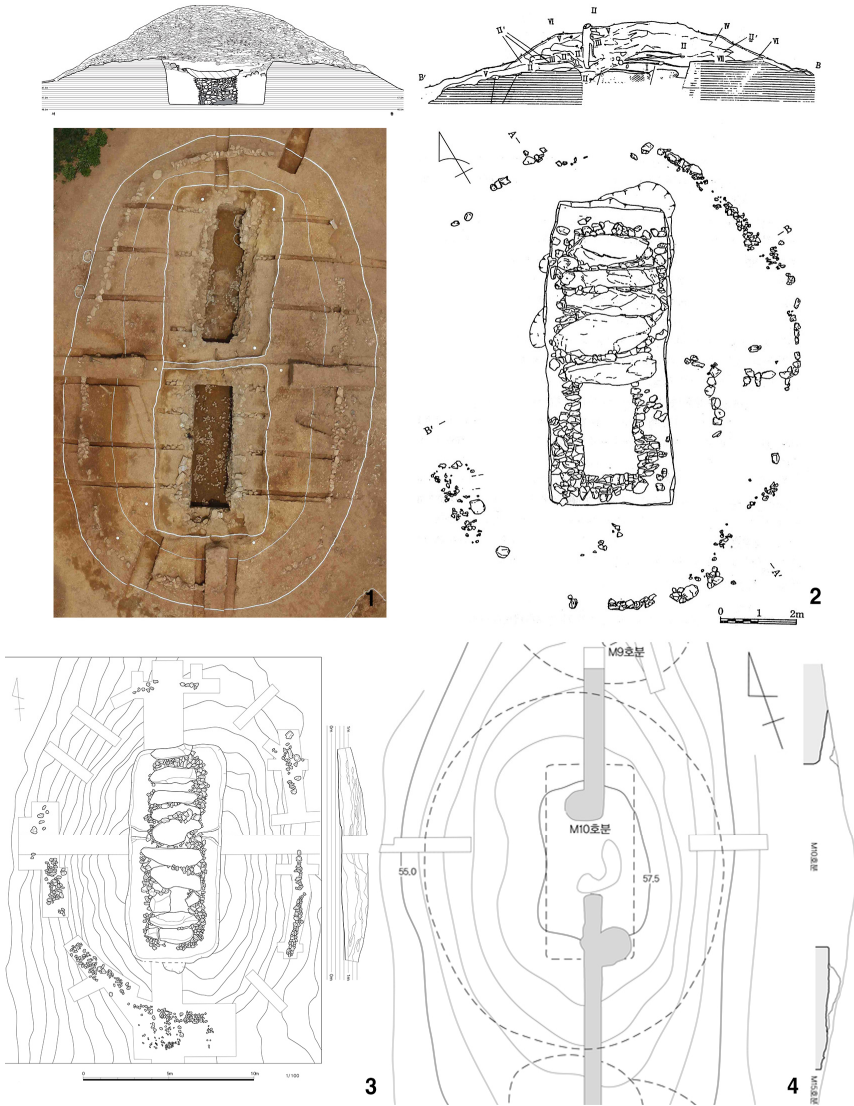
3. 연산동 고총고분의 특징과 성격

연산동고분군에는 현재까지 총 18기의 고총고분이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고, 이들은 지형 특성에 따라 M3호분, M6호분, M10호분을 중심으로 한 3개의 군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심각한 도굴의 피해를 입어 고분군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봉분에 대한 완전한 해체조사가 이루어진 M3호분을 포함하여 매장주체시설 내부까지 확인된 고총고분이 총 5기(M3·M4·M7·M8·M10)이다. 이 5기를 중심으로 매장주체시설과 봉분 등에서 공통된 요소와 구조를 파악하여 연산동 고총고분의 특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단,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서와 관련 논문들에서 몇 차례 상세히 언급된바 있어 표로 간략히 정리하고<표 10>,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연산동고분군 주요 고총고분의 제원과 내용

호수	봉분			매장주체시설			
	분형	규모(短*長)	개석위 봉분높이	묘형	묘광규모 (길이*너비*깊이)	석곽규모 (길이*너비*깊이)	위치
M1	타원형	15*17.5	2.4	?	11.2~12.4*?	?	지하식
M2	타원형	8.7*18.2	0.8~0.9	?	11.3*5.3	?	지하식
M3	타원형	16.8*24.5	2.7	이혈 주부곽	주8.8*6*2.3 부9.2*5.8*2	주7*2.3*2 부7.6*1.8*1.8	지하식
M4	타원형	12.7*16.4	2.2	동혈 주부곽	10.7*4*2.4	주4.5*2*1.5 부3.4*1.7*1.5	지하식
M5	타원형	8.3*14.5	1.4	?	?	?	?
M6	타원형	19.6*20.4	?	?	?	?	지하식
M7	타원형	14.6	2	동혈 주부곽	10.8*5*1.5	주4.2*1.5*1.3 부3.7*1.5*1.3	지하식
M8	타원형	17*22	?	이혈 주부곽	12.4*5.3*2.1	주5.4*1.8*1.5 부3.7*1.5*1.5	지하식
M10	타원형	17.4*19.5	1	단독곽	12.4*?*1.8	9.9*1.7*1.6	지하식

*고딕체는 매장주체시설 내부가 조사된 고총고분



<그림 13> 연산동 고총고분(축척부동)

1. M3호분 2. M4호분 3. M8호분 4. M10호분

연산동 고총고분의 매장시설은 지하식의 세장방형 석곽묘이며, 묘형은 일렬 주·부곽식이다. 복천동고분군의 묘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연산동 고총고분에 이르러서 주·부곽식이 단곽식으로 변해간다. 석곽이 지면 아래에 위치하여 복천동과 동일한 지하식인데, 복천동의 완전한 지하식에 비해서는 지표면 근처까지 올라온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고총화와 관련지어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봉토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발치 쪽에 구덩이를 파고 대호를 안치하는 부장양상까지 복천동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듯 연산동 고총고분은 매장주체시설의 크기와 구조로 보아 복천동고분군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동일계보의 고분군임이 확실하다³²⁾. 반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과는 달리 연산동고분군의 성립에 대해 신라가 이 지역을 領有함에 따라 새로운 고분군을 조성하였고 인위적인 세력 재편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 주장은 소위 신라양식토기와 신라식 위세품 부장을 근거로 하여 연산동 고총고분을 신라의 간접지배 하에 있는 신라 고총으로 보는 것이다³³⁾.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토기문화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해석, 마구·갑주 등 고고유물의 출토양상과 분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³⁴⁾. 필자의 관점도 이와 동일한데, 연산동고분군 조영집단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기엔 신라고총論이나 간접지배論은 이론적으로는 간단명료해 보이지만 그만큼 개념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고, 개별 고고자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필자는 연산동고분군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총고분의 축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봉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분석한

32)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18~122쪽.

33) 김용성, 『연산동 고총의 성격』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88~94쪽.

34)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30~133쪽.

바와 같이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축조 흐름 속에서 연산동고총고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산동 고총고분의 봉분은 입지와 지형에 영향을 받은 M6호, M7-1호, M7-2호 정도를 제외하면 평면형태가 거의 모두 타원형이다. 봉분의 장축방향이 능선 방향과 동일하고 이것은 세장방형 매장주체시설의 주축방향과도 일치한다. 긴 매장주체시설의 형태와 지형을 고려한다면 타원형의 평면형태는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원형을 의도하거나 기획한 봉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봉분의 기저부에 설치된 호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1단, 1열로 설치하였는데, 부분적으로는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좁석처럼 된 부분도 있다. 이 1단의 호석조차도 외면을 맞추거나 정연하게 쌓은 부분이 없고, 크기도 대체로 작아 봉분유실을 방지할 정도의 기능적인 요소는 매우 낮다. 호석은 최종적으로 봉분 내부에 포함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호석의 기능은 봉분성토 시 범위를 설정하는 基準石 정도였을 것이다. 한편, 노출된 호석을 기준으로 보면, 봉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라기보다 卵形 혹은 부정형에 가까운 정도로 대칭성이나 규칙성이 없다. 오히려 지형에 맞춰 봉분의 범위가 적당히 설정된 느낌이 강하다. 봉분의 성토높이는 연산동 고총고분 중 최대형분에 해당하는 M3호분의 사례로 보아 개석 위 성토높이가 대략 3m정도이다. 필자는 이 높이가 이러한 매장시설의 구조와 입지에서 쌓을 수 있는 최대높이로 보고 있다. 지형적인 효과 덕분에 봉분의 가시적 높이가 5m 이를 정도로 높아지지만, 매장주체부의 규모에 비해 봉분의 크기는 크지 않다. 최대형분에 해당하는 M6호분, M10호분이 직경 20m에 불과하고 그나마 M3호분도 장축의 직경이 25m정도이다.

이렇듯, 연산동 고총고분은 매장시설에 있어 전통의 지하식 석곽을 고수하면서도 봉분은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시적 효과를 노

릴 수 있는 최소한으로 축조하였다. 세장방형의 매장시설이 중심이 되어 봉분의 범위와 크기를 설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아 고대한 봉분을 쌓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은 그렇게 적극적이 않았다. 이는 동시기 경주나 그 주변지역에서 나타난 고총고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본고에서 설정한 전형적인 가야식 고총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총고분 축조(표출)방식은 바로 낙동강 연안의 가야 제 소국들과 동일한 양상이다. 토기·마구·갑주 등 다양한 고고유물의 분포도 이러한 연결망과 일치하는데³⁵⁾, 연산동 고총고분을 비롯한 이들 세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고 같은 출계에 대한 공감대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식 고총 내에서도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고총고분이 표출되는 것은 각 지역별 수장들의 독자적인 자치권, 교섭권 그리고 제의권 등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핵심 논지는 아니나 연산동 고총고분만큼이나 논란 속에 있어 언급해 두어야 할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창녕지역이다. 낙동강 연안의 제 가야 소국 가운데, 창녕지역의 고총고분은 출현초기부터 다양한 신라적 요소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계남리 1호분, 4호분을 보면, 지상화된 묘곽, 정연한 호석, 봉긋한 봉분, 다양한 구획요소 등이 확인된다. 필자가 앞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무덤의 고총화를 위한 구조이며, 경주 적석목곽묘에서 잘 나타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고총성행기에 해당하는 교동 7호분이나 동아대 발굴 1호분, 3호분 및 송현동고분군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뚜렷하여, 본고의 분류에서 신라식 고총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분류와는 별도로 이 지역 고총고분 축조세력의 성격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창녕지역의 양상을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신

35)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30~133쪽

라의 고총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표출하고자 한 의지나 접근성으로 이해하며, 세력집단의 정체성이나 성격의 변질은 다른 곳에서 찾아한다. 그것은 장법이나 장제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특징적인 것인데, 바로 봉분의 연접이다. 경주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경산, 대구, 영덕 등 신라문화권에서 봉분의 연접은 아주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봉분축조 방법이다. 단순한 봉분축조방식이 아니라 피장자 상호간의 친연관계를 표현하는 신라문화권 전통의 장법인데, 창녕지역에서는 이 봉분연접의 출현시점이 6세기 1/4분기에서 2/4분기 사이이다. 그것도 송현동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데, 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창녕지역에 연접분이 확인되며 여기에 부장된 경주식(산)토기의 수량 증가도 이와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지역 유일한 적석목곽묘인 교동 12호분의 축조시점도 이 무렵이다³⁶⁾. 즉,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창녕지역 지배세력의 성격 변화를 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영남지역에 존재하는 각 지역 고총고분들은 봉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고총화에 주력한 신라식 고총과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완만한 봉분을 쌓은 가야식 고총으로 나뉜다. 고총고분의 축조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구조와 축조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연산동 고총고분은 함안, 함천, 고령 등 가야세력에 존재하는 고총고분들과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 신라문화권의 고총고분과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신라양식토기나 신라식 위세품 세트의 부장을 근거로 연산동 고총고분의 성격을 신라고총으로 이해하고자 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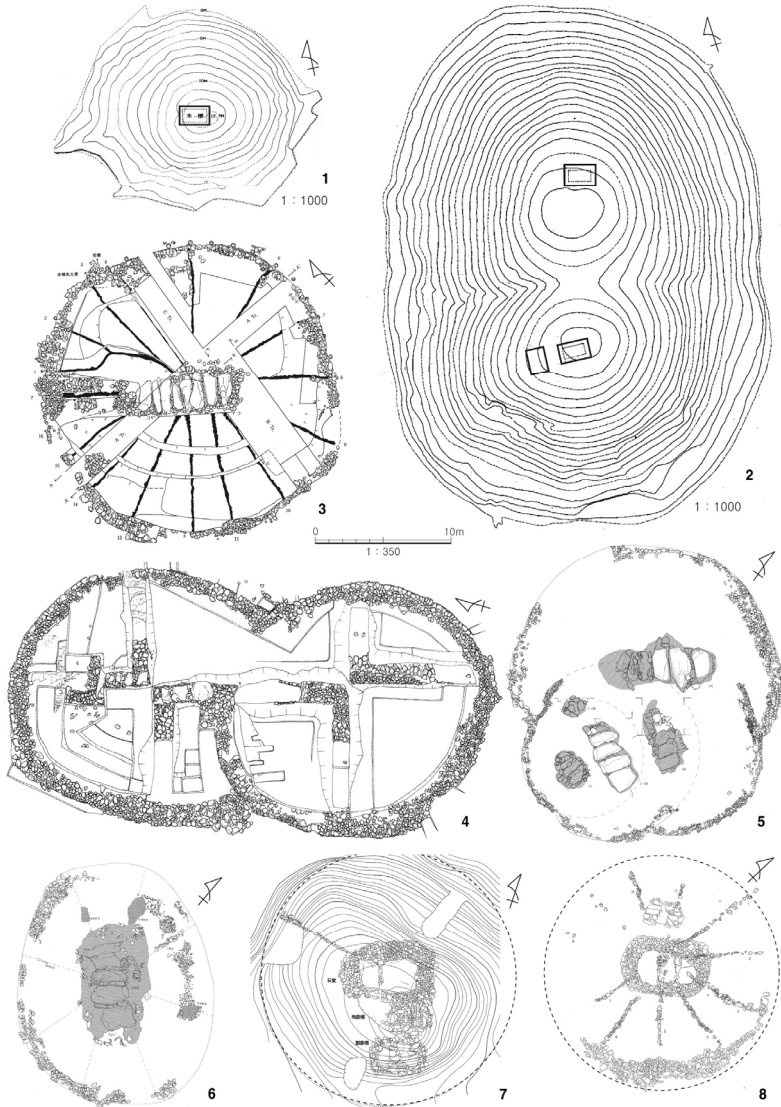
36) 심현철, 「창녕 교동12호분의 구조와 성격」, 『야외고고학』 18, 2013b, 123~127쪽.

은 재고가 필요하다. 유물을 기초로 한 신라·가야론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고총고분 축조문화를 보더라도 경주의 특징을 따라가기보다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고 낙동강 연안의 가야 소국들과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연산동 세력이 완전히 신라로 편입되어 예측된 시점은 연산동 고총고분의 축조 중단 이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 전까지는 독자의 自治權과 交涉權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특징적인 고총고분의 모습에서는 독자적인 祭義權까지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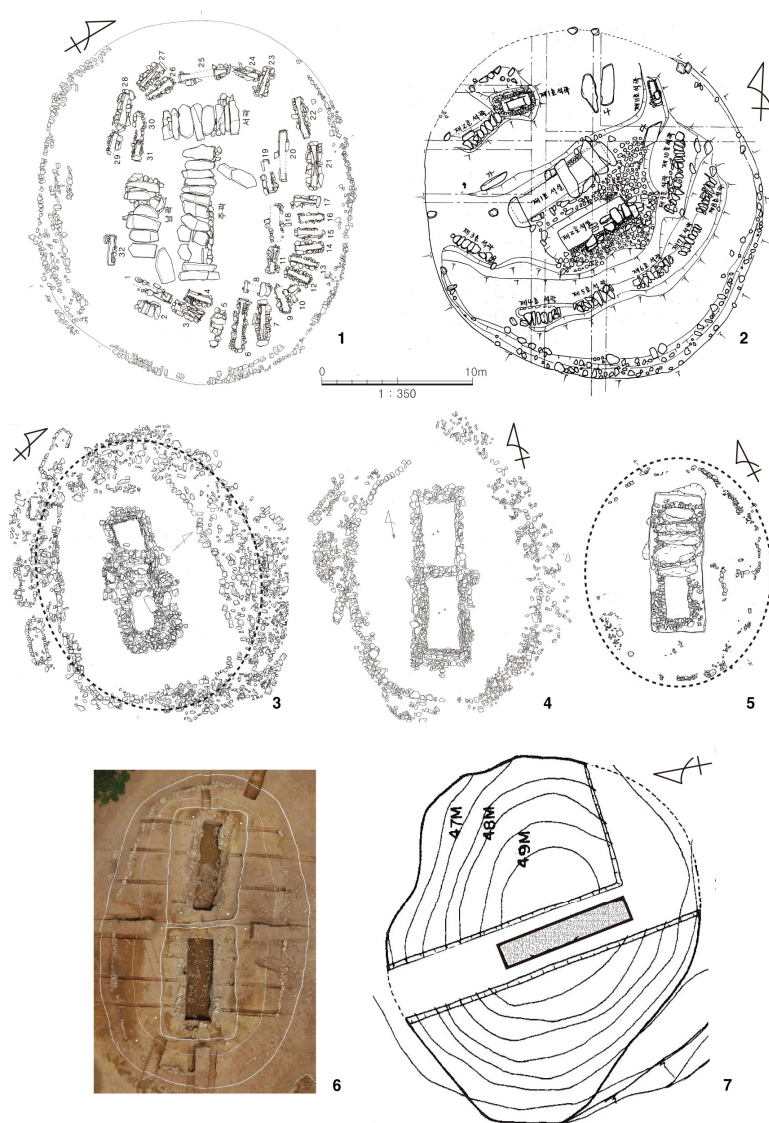
이 글은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큰 축조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보니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은 확인되었지만, 각 지역별 고총고분의 세부적인 특징이나 변화양상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봉분의 규모나 평면형태는 시기나 지형, 입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봉분축조기술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논지전개에 필요한 몇몇 핵심지역 고총고분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추후 여기서 다루지 않은 지역들을 모두 포함하여 영남전역에 걸친 가야·신라 고총고분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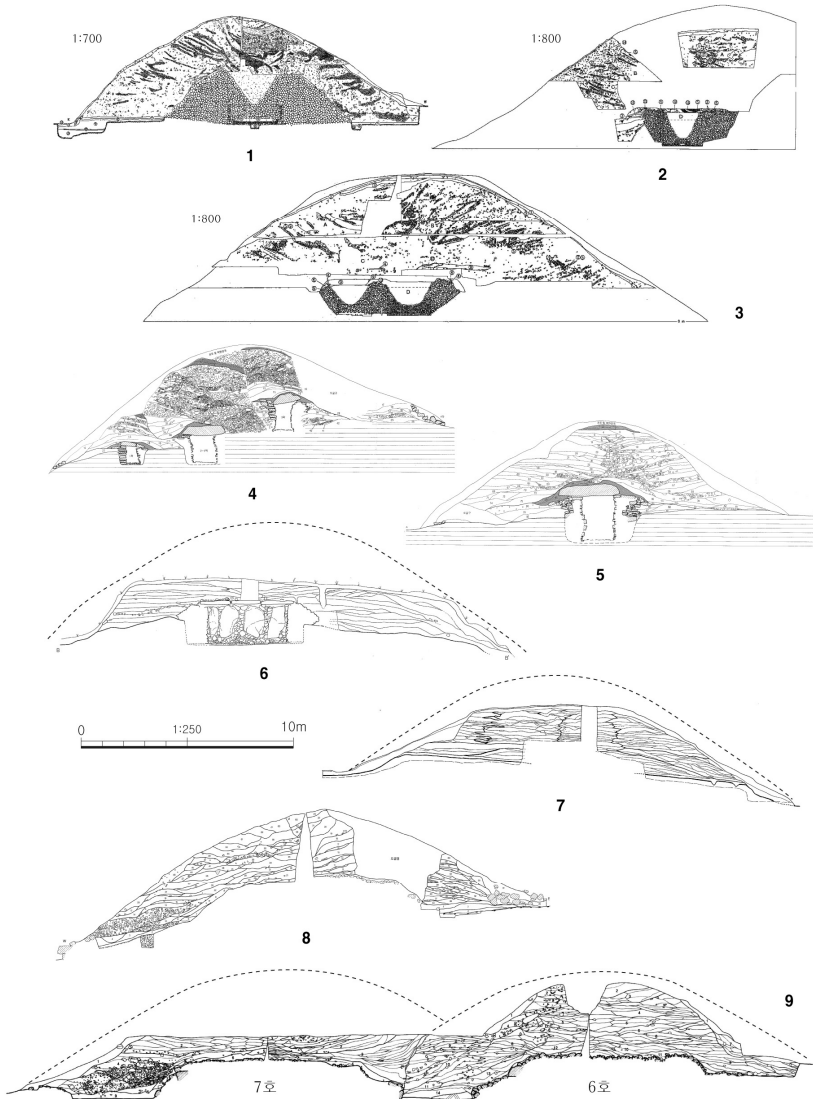
<그림 14> 신라식 고총(봉분평면)

1. 천마총 2. 황남대총 3. 교동1호 4. 송현동 6·7호 5. 불로동 91호 6. 불로동 93호 7. 성산동 38호 8. 성산동 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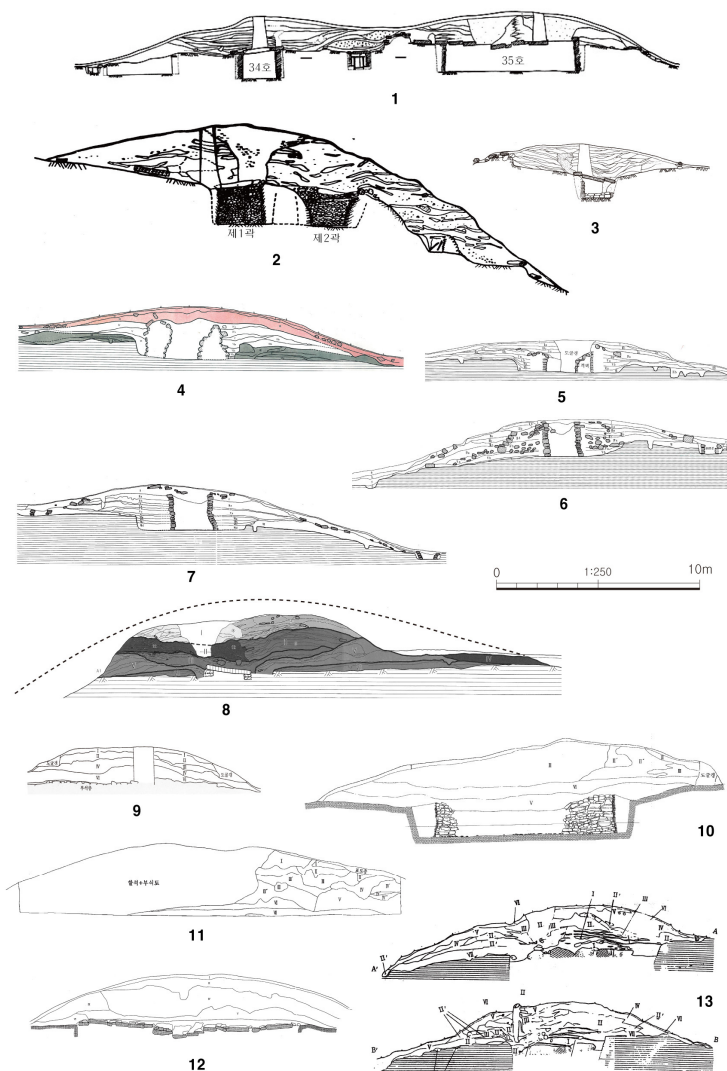
<그림 15> 가야식 고총(봉분평면)

1. 지산동 44호 2. 지산동 45호 3. 옥전 M1호 4. 옥전 M3호 5. 연산동 4호 6. 연산동 M3호 7. 말이산 22호



<그림 16> 신라식 고총(봉분단면)

1. 천마총 2. 황남대총 북분 3. 황남대총 남분 4. 불로동 91호 5. 불로동 93호 6. 성산동 58호 7. 성산동 39호 8. 송현동 15호 9. 송현동 6·7호



<그림 17> 가야식 고총(봉분단면)

1. 지산동 34·35호 2. 지산동 45호 3. 지산동 32호 4. 옥전 M3호 5. 옥전 M7호 6. 옥전 M4호 7. 옥전 M1호 8. 말미산 6호 9. 말미산 암각화고분 10. 말미산 22호 11. 말미산 8호 12. 말미산 15호 13. 연산동 4호

| 참고문헌 |

1. 저서

- 김용성, 『신라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대한문화재연구원 역,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2013.

今西龍, 『大正六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1.

2. 논문

- 김대환,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영남고고학』33, 영남고고학회, 2003.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 부산시 연제구청, 2013.
 _____, 「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 박물관 · 부산시 연제구청, 2016.
 김용성, 「연산동 고총의 성격」,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신경철, 「김해대성동 · 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 - 금관가야 이해의 일단-」『부대사학』 1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5.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構造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쪽.
 _____, 「新羅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과정」, 『韓國考古學報』 88, 한국고고학회, 2013a.
 _____, 「창녕 교동12호분의 구조와 성격」『야외고고학』18,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b.
 _____, 「新羅·加耶 高塚古墳의 築造技術-地域別 高塚築造model의 提示-」『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 부산시 연제구청, 2013c.
 _____,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고고광장』 15, 부산고고학연구회, 2014.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관하여-구분성토현상을 중심으로-」『영남고고학』 13, 영남고고학회, 1993.
 _____, 「韓日古墳の土木技術」『월간고고학ジャーナル』No.505 뉴어 · 사이엔

스社, 2003.

주보돈, 「가야사 새로 읽기」『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14.

홍보식, 「횡혈식·횡구식석실분의 봉분조성방식 검토」『백제와 주변세계』, 성주탁 교수추모논총간행위원회, 2012.

_____, 「고분구축기술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시 연제구청, 2016.

홍보식·심현철, 「各種 古墳別 封墳形態와 築造方法」『한일의 고분』, 제4회 한일교섭의 고고학 공동연구회, 2016.

齊藤忠, 「大邱附近於古墳調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40.

(報告書 및 報告文은 省略)

투고일: 2017.06.20. 심사완료일: 2017.07.04. 게재 확정일: 2017.07.20.

| Abstract |

The regionality of the ancient tomb with a gigantic mound in
Yeongnam area and the Yeonsandong tombs

Shim, Hyoun-Cheol

The ancient tomb with a gigantic mound of Yeongnam area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by a burial facility, the structure of a mound and construction method. It could be called Silla type and Gaya type because it is distributed in sphere of influence of Silla and Gaya. The Silla type tomb with gigantic mound is focused on constructing high mound. In case of the Gaya type tomb with gigantic mound, a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burial facility, a gentle sloped mound was constructed. The ancient tomb with gigantic mound of Yeonsandong has features of Gaya type such as a gentle sloped oval mound, low stone slabs. It shows that the group who constructed Yeonsandong tombs belongs to the same system with other small contries of Gaya as sharing culture. It means that the Yeonsandong group kept its own autonomy and diplomatic right until the tomb with a gigantic mound was constructed. The same pattern is also checked in Changnyeong. After the tomb with gigantic mound stopped to built in this area, this group was incorporated into Silla.

Key-word : ancient tomb with a gigantic tomb, regionality, Silla type tomb with a gigantic tomb, Gaya type tomb with a gigantic tomb, ancient tomb with a gigantic tomb of Yeonsandong

